

9·24구역 (벤엘) 봄나들이



지난 4월 16일(토)에 벤엘구역은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에 구역식구들과 동해안에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영동고속도를 달려 원전 6기가 운전되고 있고 2기가 건설 중인 울진원자력본부에 도착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뉴스를 들어면서 막연히 불안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겨자씨모임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직접보고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하니 토요일 휴일인데도 직원들이 저희 주님의교회 식구들을 반기어 맞아주면서 우선 홍보전시관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황, 우리나라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운영중인 발전소에 들어가 발전소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일본에서 사고가 난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을 생각할 때 원자력은 필요하나 보다 안전하게 건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 관광지에서 들려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역의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명기 집사〉

남을 도울 수 있는 삶 (복지사역팀 봉사자 산행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남을 위해 산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삶을 사는 우리들! 복지사역팀 봉사자들은 매주 자기가 맡은 날들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는 공동체로 봄 산행을 겸한 야유회를 4월 29일(금) 남한산성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복지사역팀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 독거노인 죽 배달팀과 화요일과 수요일 가락동 노인정 점심식사팀, 거여동노인정 봉사팀으로 이루어져 봉사를 합니다. 함께 산길을 걸으며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산을 오르며 바람에도 꽃잎을 활짝 피우고 있는 야생화의 모습에서 사랑의 부드러움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껴보며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보며 봉사자들의 사랑의 땀과 아기 꽃들과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싹트는 참사랑을 느껴봅니다. 연한 에메랄드 빛, 연한 잎새로 꽃 진 자리를 매우기 시작해서 이제 5월이 오고 6월이 지나가면서 눈을 찌를 듯이 맹렬해질 초록의 기세를 미리 짐작해보는 마음을 비가 많이 올 때도 무더위로 힘들 때도 지지치 않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우리들의 공동체의 삶 함께 걸어가기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행을 함께한 멋진 날들 우리 모두 보다 큰 은혜를 느낀 귀한 날이었습니다.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길가에교회〉 향촌적 임직예식

길가에교회(담임: 이인호목사) 창립 이래 두 번째로 맞는 임직예식이 오는 2011년 5월 22일(주일) 오후 4시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동화중등학교 강당인 여호수아홀에서 열린다(설교 및 축도: 박원호목사). 길가에교회는 본 교회가 2005년 12월 11일에 개척한 교회로서, 동화중등학교 강당과 학교 내 전용공간을 이용하여 집회와 교육 및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개척 당시 이인호목사를 비롯한 30여명이 본 교회로부터 파송 받아 2011년 5월 현재, 어린이 포함 350여명의 규모로 착실히 성장해 가고 있다. 금번 임직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 박용운 / 안수집사: 김병찬 황인태 황철우 류재홍 남궁황 / 권사: 김인숙 신양금 채남숙 변혜란 강영애 백경희 * 임직예식 후 만찬이 있으며 화환 및 꽃다발은 사절한다고 한다.

교회소식 이모저모

-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이동훈 작곡의 "골고다의 아침" 연주회가 살롬찬양대와 서울세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4월 27일(수) 오후 7:30 대에배실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제1부 기도와 말씀, 제2부 헨델의 음악과 이동훈작곡 "골고다의 아침"을 연주하였습니다.

- 찬양대 연합수련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후원과 1-4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Missio Deo 찬양대, 주요 챔버 주관으로 찬양대 연합수련회가 4월 30일(토) 13:30-19:40 대에배실에서 은혜스럽게 개최 되었습니다. 1부 영성훈련과 찬양대 홍보로써 박

원호 담임목사님의 특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2부 발성훈련 및 친교로 최홍식교수, 남도현 교수(강남세브란스 병원)의 "발성과 성대보호 및 치료"란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0Plus 부활절 기념 노방찬양 및 헌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20Plus 청년공동체에서는 이 복된 소식을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부활절 특별행

사를 기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는 요한복음의 내용에 따라, 노방찬양 때에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계란과 사영리를 나누어주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헌혈행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은 이번에 청년부에서 실시한 사순절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한 데 이어, 노방찬양과 헌혈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고백이 이후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 성경_ 한자로 풀어보기

恩惠(은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

태의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과 天倫(천륜)을 맺고 스승을 만나 人倫(인륜)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恩惠(은혜)의 辭典的(사전적)의미는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이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恩(은혜 은)을 뜯어보면 因(인할 인)과 心(마음 심)으로 엮여졌으니 「도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이 된다.

★惠(은혜 혜)는 專(오로지 전)의 획 줄임에 心(마음 심)의 합자이므로 「대가 없이 오로지 베푸는 마음」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恩은 받는 쪽의 고마움이고 惠는 베푸는 쪽의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작게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오늘의 말씀|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_ 엡 6:1

통 권 제 284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5월 8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우리들은 모두 주의 어린이!

- 가족과 함께 떠난 성경여행, '2011 주님의교회 어린이 무지개 잔치'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서 마련한 '2011 어린이 무지개 잔치'가 5월 5일 어린이날 주님의 교회가 자리한 정신학원 운동장과 강당에서 펼쳐졌다. 우려했던 황사바람이 사라져서 맑고 청명한 날씨가 주님의 축복처럼 잠실벌에 가득한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마가 9:37)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주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한 갖가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마당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었다.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어린이 무지개잔치는 ‘우리들은 모두 주의 어린이’라는 주제 아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교회와 교회 속 가족들을 가까이 만나는 경험을 쌓는 영적인 잔치가 되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족 등 지역사회의 외로운 가족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사랑, 기쁨,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9시 30분, 박원호 담임목사의 개회사와 함께 화려한 축포로 막을 연 이번 잔치는 성경마을과 에어바운스와 같은 놀거리, 인형극과 뮤지컬과 같은 볼거리, 갖가

지 먹거리로 이루어졌다.

성경마을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Family Bible Adventure)”을 주제로 ‘노아마울’, ‘베들레헬’, ‘가나마울’로 구성되었다. ‘노아마울’은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가족과 함께 즐기는 구원방주 미니 올림픽’을 테마로, 방주의 이야기 그림을 관람하고, 구원의 과정을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게임과 퀴즈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베들레헬’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인 ‘베들레헬’이 원래 ‘떡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떡메를 들고 떡을 치는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굿간과 말 구유 세트를 보고 성구를 외우면 예수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솜사탕을 선물로 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직접 초를 만드는 과정을 실습하도록 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호산나 나귀 타기 체험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살아 있는 나귀가 등장해서, 어린이들을 태우기도 했고, 나귀가 끄는 마차를 타기 위해 많은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가나마울’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 마을을 기억하며 ‘내가 만드는 기적의 포도주’ 체험을 갖고,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로 꾸미고 포토존에서 예쁜 가족사진을 찍어 기념이 되도록 했다. 운동장에는 대형 에어바운스 두 세트, 에어미끄럼틀 두 세트, 바이킹 두 세트가 마련되어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먹거리로는 빙과와 음료, 과일, 슬러시, 떡볶이, 핫도그, 샌드위치, 김밥, 어묵, 전, 빵, 만두, 순대, 해물전, 육개장, 탕수육, 자장밥 등 잔치라는 이름에 걸 맞는 다양한 메뉴가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인기를 끌었는데, 일부 메뉴는 일찍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소예배실에서는 영, 유아, 유치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레크미술인형극인 <방귀대장 뽕뽕이의 달란트>가 상연되었다. 방귀 뀌는 것이 재주인 뽕뽕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형극을 보기 위해 어린이와 함께 온 부모님을 포함한 관객이 소예배실의 288석 좌석을 가득 채우고 통로에도 앉고 서는 진풍경을 보였다.

점심 시간 후 대예배실에서는 뮤지컬 기획사 ‘마굿간’이 연출한 어린이 뮤지컬 <춤추는 나무>가 공연되었다.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2,000여 관객들은 아름다운 뮤지컬의 멜로디와 은혜로운 내용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2011 어린이 무지개 잔치에는 예상

을 넘은 약 2,500명이 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한 것으로 총괄 기획을 맡은 황남호 안수집사는 추정했다. 교회 어린이 약 600여 명 외에도, 인근 지역과 다른 교회 어린이 약 400명, 송파어린이집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약 300명, 학부모 약 1,2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교육목회원 박혜성 목사, 박요한 전도사의 인도와 위원장 조성득 장로 외 연인원 삼백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열심을 다해서 2개월 전부터 준비한 바 있다. 행사 당일에도 교사 250명이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안내하였으며, 권사회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기획하는데 큰 공을 들였고, 청년부에서도 70여 명이 전날 늦은 밤과 당일 이른 아침부터 텐트 설치와 안내 등 온갖 갖은일을 맡아 수고했다. 황남호 집사는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 격려하며 동참하고, 이 큰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 속에서 힘든 일에 땀 흘려주신 여러 형제자매 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경식 기자 avecarc@gmail.com>

주간 목회력

<주님의교회 의료인 총동원주일>
5.8(주일) / 중예배실 앞 응급진료실
<킹덤 비전 어린이 영어캠프> 8.4(목) ~ 13(토)
<교회개혁 준비기도회> 매주(목) 오후 7:30 / 초등부실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5.8(주일) 오전 7:40~11:10
<정기당회> 5.8(주일) 오후 3:30 / 대회의실
<교역자 해외연수> 5.8(주일) ~ 21(토) / 미국
<외국인 노동자 진료> 5.8(주일) 교회출발 오후 1:30

MK를 아십니까?

해외에서 체류할 때 모국을 First Culture라 하고, 다른 문화 즉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Second Culture라고 한다. 또한 부모의 문화권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체류했던 체류국의 문화권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다시 접하게 되는 또 다른 문화, 새로운 문화를 Third Culture라 정의한다.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Third Culture Kids(제 3문화 아이들)라고 부르는데 선교사 자녀 MK들도 넓은 의미의 Third Culture Kids(TCK)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작년 말 현재 세계 169개국에 2만 20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2위의 개신교 선교 대국이다. 우리 주님의교회도 5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3개국의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주님의교회가 이 땅의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제는 MK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MK가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제대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한번 만나면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에 외톨이로서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고 고백한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도 금방 헤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선교지의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생활고도 MK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집, 남들처럼 국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현지인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형편들……. 선교지라는 상황 때문에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신변에 대한 불안감마저 크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겪는 문화충격은 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한다. 부모님의 안식년으로 고향인 한국에 돌아오거나 한국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심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인도, 현지인도 아닌 제3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선교사가 제일 강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요, 현지의 문화를 익히는 것도 아니며, 사역 역시 아닙니다. 선교사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은 어떤 것이라도 능히 강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참

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어느 선교사

선교사 자녀들 중 60%이상이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로 볼 때 3,4대를 이어 동일한 선교 현장에 동일한 선교사역을 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빛진 사람들이다. 사실 MK만큼 선교현장에 익숙하고 다중문화권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1세대가 겪는 문화충격과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고 필요한 훈련 과정도 많이 줄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효과적인 선교 후원을 위해서도 MK들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년 여름 한국에서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MK들을 모아 MK Conference를 갖는다. 이미 오래전 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세워진 선교단체에 의해서이다.

MK Conference는 그들이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며 치료받고 자라나는 시간이다. 우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로 짐을 나뉘지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파송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올 여름 비전트립에 앞서 주님의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자녀부터 살펴봐야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으며 기도할 때 구체적인 섬김의 방향이 마련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 홍기협 편집장 keehhong@hanmail.net 〉



서울 은퇴목사 초청예배



5월이 되면 까닭 없이 뭔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마음, 뭔가 꼭 빠져나간 것만 같은 텅 빈 가슴 속에 메마름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더 소중히 우리의 삶을 겨어 아봅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삶. 그 숨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우리들, 가는 길만 있지 되돌아오는 길은 없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메마른 이 사회에 작지만 하나의 빛이 되어주는 삶도 좋지 않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는 이 시간 은퇴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4일(수), 서울 은퇴목사 초청예배가 중예배실에서 200여명의 은퇴목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정의 달 5월에 열린 초청예배에서는 그동안 서로 뵙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만남과 예배 후에 교우님들이 준비한 정성스런 식사를 나누며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목사회에서는 초청해주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교육목회원 <햇살뜨락-초등부>



‘햇살뜨락’은 10-11세의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초등부가 주님의 햇살이 가득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 마음의 뜰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형성된다면 이들이 새롭게 맺기 시작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나 크게는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들의 앞날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멋진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초등부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일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품고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 하루 봉사하는 차원을 넘어 주일날에 가르칠 말씀을 초등부 카페(<http://cafe.daum.net/sunlight07>)를 통해 주중에 미리 묵상하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기도와 말씀묵상을 나누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하며 예배와 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 마음에 그려주기 위



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멋진 화가와 같은 분들이며, 아이들을 위해 주저 없이 자신들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신 겸손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이들은 늘 이 행복을 전달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 마음에 가장 잘 담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기초한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중의 하나가 초등부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교육예배드라마’와 ‘메빅예배’입니다. ‘교육예배드라마’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 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다양한 시청각적인 요소로 구성된 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이들은 수동적 관람자가 아니라 성경이야기에 나오는 각각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바닥에 옷을 까는 이스라엘 백성 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증인 역으로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 찬양으로, 기도로, 글로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메빅예배’는 성경학습 게임(MEMORY BIBLE GAME)의 약자로, MEBIG은

ME=MEMORY/성구암송, BI=BIBLE/말씀(메세지), 성경공부, 찬양, 기도, 암송, G=GAME/신나는 놀이를 뜻합니다. 메빅예배는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 찬양과 게임을 통해 드리는 신나는 예배로, 아이들의 공동체 훈련에 큰 역할을 하는 예배입니다. 항상 메빅예배 준비와 진행을 위해 헌신하시는 청년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또한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숨사탕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주일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 앞에서 숨사탕과 함께 전하는 우리의 사랑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다 쉽게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숨사탕 전도 가운데 마주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잘 지냈지? 내일도 힘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씩씩하게 “네~!”하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면 선생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달콤한 숨사탕처럼 피어오릅니다.

올해 햇살뜨락의 표어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초등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모든 밑바탕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 우리 햇살뜨락 초등부에서는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앞으로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적, 인격적 기초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햇살뜨락 초등부 어린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참 소통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 이미지인 ‘사랑’이 건강하게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문규호전도사 ubogiteatr@hanmail.net >

어린이 주일 축하공연, 유아세례식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2부, 3부 예배에서 유치부와 유년부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부예배에서는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강예진, 강태현, 김 준, 김 훈, 김다솔, 김범준, 김유겸, 김재겸, 김준수, 김지유, 김하람, 김하윤, 류미람, 문주아, 박시윤, 백지후, 서주호, 신이준, 안예은, 윤연준, 윤하람, 이승준, 이임재, 이하진, 정세은, 정하은, 정찬민, 조예랑, 최준원)